

# 老乞大諺解類 諸板本 중 ‘就’의 번역에 관한 연구

맹주익\* 김정림\*\*

##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就’의 역사적 변화
3. 노걸대 언해류에 나타난 ‘就’의 종류
4. 언해류 중 ‘就’의 번역에 대한 분석
5.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老乞大는 조선인이 중국어를 공부하던 회화서로서, 대체로 元末 · 明初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다. 이 시기의 언어는 근대중국어 시기에서 보자면 이전 시기의 것을 이어받아 그것을 이후로 전하는, 新舊가 교체하는 시기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여러 가지 어법특징을 드러내고 있다.<sup>1)</sup> 언해문은 중국어를 공부하는 조선시대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번역된 것으로 세종 28년(1446년)에 탄생한 훈민정음으로 언해를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언해류 자료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 전해지는 내용을 그대로 믿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미 김완진(1975), 여찬영(1987, 1988), 성광수(1990) 등의 여러 학자들에

\* 한국의국어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BK21 신한중문화전략사업단

\*\*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BK21 신한중문화전략사업단

1) 유성은(2000:1)

의해 밝혀진 바 있다.

중국어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있어서 풀어야 할 점은 대응되는 어휘와 문법적인 요소를 찾는 일일 것이다. 어휘의 경우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므로 우리말에서 그 대응어를 어느 정도 찾아 대응시킬 수 있으나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요소들은 쉽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확실하게 대응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언해문에서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무리 확실히 번역하였다 하더라도 일부는 원문이 나타내는 의미와는 다르게 번역을 했을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

‘就’는 고대 중국어에서는 그리 많은 뜻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지만 실사와 허사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허사의 기능이 비교적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번역을 하는데 있어서 오류를 범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就’의 고대, 근대의 의미와 기능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어 원문과 번역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翻譯老乞大』(1510년경), 『老乞大諺解』(1670년), 『舊刊老乞大』(1745년), 『老乞大新釋諺解』(1763년), 『重刊老乞大諺解』(1795년) 이렇게 5개 판본의 언해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sup>2)</sup>

## 2. ‘就’의 역사적 변화

‘就’는 동사, 전치사, 접속사로 사용되던 단어로 근대시기로 접어들면서는 대부분 허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고대 중국어에서는 ‘就’ 대신에 ‘便’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근대에 들어와서는 ‘就’가 ‘便’의 역할을 거의 대신하고 있었다. 우선 고대와 근대시기 ‘就’의 기본적인 의미와 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sup>3)</sup>

2) 여기서 정리하는 ‘就’의 용법과 의미는 고대의 경우 『古代漢語詞典』(2001), 商務印書館, 『古代漢語字典』(1998), 北京大學出版社를 참고하였고 근대의 경우에는 『近代漢語詞典』(1997), 團結出版社, 『近代漢語虛詞詞典』(2002), 河北教育出版社를 참고 하였음을 밝혀둔다.

1) 고대시기 '就'의 의미와 용법

① 접근하다. 가까이 하다.

《孟子 · 告子上》：“犹水之~下也。”

《荀子 · 勸學》：“金~礪則利。”(礪：磨刀石。利：鋒利。)今成語有“避重就輕”。

② 이루다.

《戰國策 · 齊策四》：“三已~。”

《逐客書》：“河海不擇細流，故能~其深。”

③ 인간세상의 마지막, 죽다.

《國語 · 越語下》：“先人~，不谷即位。”(不谷：君王謙稱。)

④ 곧, 바로

《普書 · 景帝紀》：“必以文武爲諡，請依何等，~加詔許之，諡曰‘忠武。’”

⑤ 설령(설사) ~라 하더라도

《三國志 · 魏書 · 荀彧傳》：“~能破之，尙不可有也。”(破：擊破。

有：占有)

고대 시기의 '就'는 ①, ②, ③과 같이 동사로 쓰이거나 ④처럼 부사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⑤의 접속사(㉔連詞<sup>4)</sup>)로 쓰이기도 하였다.

2) 근대시기 '就'의 의미와 용법

3) 여기서 정리하는 '就'의 용법과 의미는 고대의 경우 『古代漢語詞典』(2001, 商務印書館, 『古代漢語字典』(1998, 北京大學出版社를 참고하였고 근대의 경우에는 『近代漢語詞典』(1997, 團結出版社, 『近代漢語虛詞詞典』(2002, 河北教育出版社를 참고 하였음을 밝혀둔다.

4) 우리말 술어에 대해 중국어 술어를 괄호 안에 병기할 때 국어 술어에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와 구별하기 위해 앞에 '㉔'를 덧붙인다.

근대 시기 '就'의 의미와 용법을 실사와 허사로 구분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실사]

① 순종하다, 따르다. 《水滸全傳》四回：“如今便要去時，那里投奔人？不如了這條路罷。”

③ ~로 향하다.

《水滸全傳》三回：“(魯達)提起拳頭來，~眼際眉稍只一拳，打得眼棱縫裂，烏珠迸出。”

### [허사]

① 빠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

《廣韻·宥韻》：“就，卽也。”

② 점차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

《徐霞客游記游廬山日記》：“過棲賢寺，山勢至此始就平。”

③ 단독을 나타내는 범위부사

《趙盼儿風月救風塵》第一折：“妹子，你爲什么就要嫁他？”

④ 긍정을 나타내는 어기부사

《西游記》第六是六回：“在行者掌上寫了一个‘禁’字，教他捏着拳頭，見妖精当面放手，他就跟來。”

⑤ 방식의 전치사

1. '按照'

《野獲編補遺 台省 台疏譏諍》：“要條陳，不過就事論事可矣，何必程策(科學考試時用作示范的文章)？”

2. '趁'

《唐明皇秋夜梧桐雨》第三折：“寡人呵万里烟塵，你也合嗟訝，就勢

儿把吾当嚇。”

⑥ 방향과 처소의 전치사

1. '在'

《京本通俗小説 · 碾玉觀音》下：“掀起子看一看，便是一桶水傾在  
身上，開着口，則合不得，就轎子里不見了秀秀養娘。”

2. '從'

《宣和遺事》后集：“俯首就井中取水，水甚清澄，飲之甘美。”

3. '往'

《七國春秋平話后集》卷上：“次日，鄒堅領五百兵，就宅殺孫子，被  
袁達、李慕优兵捉住見帝。”

⑦ 피동의 전치사

《五代史平話 · 唐史》卷下：“偏師人蜀，而王衍就擒。”

⑧ 대상의 전치사

《題竹木石圖》詩之一：“愿就姮娥(嫦娥。 姮:heng)借明月，臥看風舞  
空山

⑨ 양보의 접속사

《詞詮》卷六：“(就)，推拓連詞，縱也。”

사전적 의미항목을 근거로 하자면 근대 중국어에서 '就'는 허사의 기능이 매우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부사의 용법은 고대에서 빠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 '卽'  
의 뜻과 함께 쓰이다가 단독을 나타내는 범위부사, 긍정을 나타내는 어기부사 등  
으로 분화되었고 전치사(◎介詞)의 용법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방식, 방향과 처  
소, 피동, 대상을 나타내는 기능으로 세분화되었다.

隋唐시대로부터 시작해서 '就'는 장소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점차 많이 쓰였다.  
晚唐五代, 宋元, 明代 시기에도 이 용법은 사용되었으나 元明이후에 '就'의 전치사  
적 용법은 점차 사라져갔고 장소를 나타내는 용법은 현대한어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sup>5)</sup> 그리고 접속사의 기능은 고대에는 물론 근대 중국어에서도 똑같이 사용

되고 있으며 현대 중국어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 3. 노걸대 언해류에 나타난 ‘就’의 종류

노걸대 언해류 중 5종 판본에 나타난 ‘就’의 출현횟수는 총 201회로 각 판본에 서의 횟수를 살펴보면 『翻老』, 『老解』, 『舊解』에서 각각 19회로 동일하게 출현하고 있으며 『新解』에서는 41회, 『重解』에서는 103회로 나타난다.<sup>6)</sup> 이것들을 앞에서 진술했던 의미항목들에 비추어 그 쓰임을 나누어 보면 전치사, 부사, 접속사로 나눌 수 있는데 각 판본의 원문을 토대로 분류를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1. 전치사

전치사(◎介詞)로 쓰인 ‘就’는 5종 판본 중에서 『翻老』, 『老解』, 『舊解』 각 판본에서 5회씩 총 15회 출현하였고 『新解』, 『重解』에서는 각각 1번씩 출현하였다. ‘就’가 전치사의 용법으로써 사용될 경우에는 처소와 방향의 두 가지 경우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미 앞서 언급하였듯이 隋唐시대로부터 시작해서 ‘就’는 장소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점차 많이 쓰였다. 晚唐五代, 宋元, 明代 시기에도 이 용법은 사용되었으나 元明이후에 ‘就’의 전치사적 용법은 점차 사라져갔다. 후대의 두 판본인 『新解』, 『重解』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각각 1회씩 출현한 것을 빼

5) 량홍매(2003:39). 현대중국어에서의 ‘就’는 ‘在나 ‘往과 같은 기능의 전치사로는 쓰이지 않지만 ‘就是’, ‘對’, ‘關於’의 뜻으로는 사용되고 있다. (예) 他們就這個問題進行了討論.

6) 이 통계에서 ‘就’가 형태소(◎語素)로 쓰인 경우 즉, ‘一就(I 08b02 一就待賣去 이피서 팔오져 하야 가노라)’, ‘將就(I 65b08 將就留下着 둘워 두저)’, ‘就要(I 28a09 我明日五更天就要早行 내 니일 五更에 죽시 일 갈 거시니)’, ‘就是(II 12a09 就是高麗地面裏也買不得 곧 高麗스 짜히라도/또 사디 물 흐리라도)같은 것들은 배제하였다.

고 더 이상 출현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전치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섞여 쓰이다가 점차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처소와 방향으로 나누어 예문을 살펴보자.<sup>7)</sup>

(1) 처소

就地頭多少價錢買來	I 13b01	『翻老』
就那裏撤下走了	I 28a08	『翻老』
今年就牢裏死了	I 28b06	『翻老』

위 예문은 『老解』, 『舊解』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就'로 구성된 전치사구 '就地頭', '就那裏', '就牢裏'는 각각 현대국어로 '생산지에서', '거기에서', '감옥에서'로 번역된다. 이후 『新解』, 『重解』에서는 '就'가 '在'로 대체되는데 이 '在'는 현대 중국어에서도 계속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就那裏拿起一塊大石頭	I 28a02	『翻老』
就那裏拿起一塊大石頭	I 35a03	『新解』
就那裏拿起一塊大石頭	I 25a07	『重解』

위 예문은 5종 판본에서 유일하게 '就'가 동일하게 출현하고 있다. 다른 예문에서 후대의 두 판본이 '就'대신 '在'가 장소의 표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반해 이 예문에서는 아직 '就'가 여전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직 '就'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대체되지 않고 혼용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5종 판본 중에서 전대의 판본인 『翻老』, 『老解』, 『舊解』는 중국어 원문이 동일하므로 세 판본 중 가장 오래된 『翻老』만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후대 판본인 『新解』, 『重解』는 원문이 동일하면 『新解』의 것을, 다르면 두 판본 모두를 제시하겠다.

## (2) 방향

明日就店裏尋你去 II07a01 『翻老』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로서는 전대의 세 판본에 동일한 예문으로 각 1회씩 나타나고 있는데 위 예문에서 ‘就’로 구성된 전치사구 ‘就店裏’는 현대국어로 ‘가게’로 번역된다. 이후 『新解』, 『重解』에서는 ‘就’가 ‘往<sup>8)</sup>’으로 대체되어 더 이상 전치사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 2. 부사

‘就’는 부사의 용법으로 가장 많이 쓰였는데 다섯 판본 모두 합하여 총 149번 출현하였다. 각 판본 별 출현횟수를 살펴보면 전대의 세 판본인 『翻老』, 『老解』, 『舊解』에서는 각 판본에서 7회씩 모두 21회 출현하였고 후대의 두 판본 중 『新解』에서는 38번, 『重解』에서는 90번 출현하였다. 『新解』의 경우에는 판본이 모두 전해지지 않아 정확한 횟수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후대의 판본으로 갈수록 부사로서의 쓰임이 잦아진다고 할 수 있다. 전대의 판본을 살펴보면 부사의 용법으로 ‘就’와 함께 ‘便’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후대 판본으로 갈수록 ‘便’의 사용은 찾아볼 수 없고 모두 ‘就’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로보아 원래 부사의 역할은 ‘便’이 주로 하고 있었는데 ‘就’가 그 기능을 나누어 담당하게 되어 전대의 판본에서는 혼용이 되다가 나중에는 ‘就’가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후대 판본으로 갈수록 부사로서의 ‘就’가 자주 등장하는 원인들 중 하나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부사어로 사용된 ‘就’는 시간부사, 어기부사, 범위부사 이렇게 총 세 가지 용법으로 나누어져 사용되고 있었는데 각각의 예문을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sup>9)</sup>

8) ‘往’의 이체자.

## (1) 시간부사

노걸대 제판본에 출현한 시간부사로서의 '就'는 모두 108회 출현하였는데 이중 전대의 세 판본인 『翻老』, 『老解』, 『舊解』에서는 각각 7회씩 총 24회 출현하였고 『新解』에서도 24회, 『重解』에서는 63회 출현하였다. 예문을 살펴보면,

我查看了門戶也就去睡了 I 32b02 『舊解』  
只怕天就明了 I 53b04 『重解』

위의 예문에서 '就'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즉시', '곧'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동작이나 상태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함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부사로서의 '就'는 어기부사나 범위부사 보다 월등히 많이 출현하고 있다.

## (2) 어기부사

어기부사란 화자가 말하는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표시해준다. 어기부사로서의 '就'는 모두 31회 출현하였는데 이는 모두 『新解』에서 12회, 『重解』에서 19회 출현하였고 전대의 세 판본인 『翻老』, 『老解』, 『舊解』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大哥就這般見愛 I 52a04 『新解』  
帶肋條的就好 I 19a02 『重解』

9) 최재영(2005)은 金景燾(2003)의 부사의 분류를 채용하고 있는데 金景燾은 근대 중국어의 부사를 어기(語氣), 정태방식(情態方式), 범위(範圍), 시간(時間), 정도(程度), 부정(否定), 중복(重複), 빈도(頻率), 관련(關聯) 등과 같은 9가지로 분류할 것을 주장하였다. 최재영(2005)은 이를 바탕으로 동시에 각 분류의 하위분류가 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분류도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삼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就’는 ‘바로’, ‘딱’, ‘정말로’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장 속에서 긍정이나 강조의 뜻을 나타내주고 있다.

### (3) 범위부사

범위부사는 ‘총괄’, ‘제한’, ‘통계’, ‘유사’로 다시 세분하여 나눌 수 있는데 ‘就’는 이중 ‘제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각 판본별 출현양상을 살펴보면 전대의 세 판본 『翻老』, 『老解』, 『舊解』에서는 역시 나타나지 않다가 후대에 와서 『新解』에서 2회, 『重解』에서 8회 출현하였다.

咱們 <b>就</b> 到後園裏去	I 46b09	『新解』
教客人們 <b>就</b> 在這棚子底下坐着吃飯	I 51a06	『新解』
<b>就</b> 在這車房裏住一宿如何	I 47b16	『重解』
你 <b>就</b> 到那裏來	I 53a01	『重解』
<b>就</b> 這銀子也是好細絲	II 59b09	『重解』

여기에서 ‘就’는 범위부사로 ‘다만’, ‘그저’, ‘오직’의 의미로 사용되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제한이 되는 것만을 가리키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어기부사와 함께 범위부사로서의 ‘就’ 역시 전대의 세 판본에는 출현하지 않았지만 후대의 두 판본인 『新解』, 『重解』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이는 ‘就’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의 용법으로 주로 쓰이다가 부사의 의미영역이 다양해져서 어기, 범위를 나타내는 기능에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었음을 말해준다.

### 3. 접속사

‘就’가 접속사로 쓰인 경우는 『重解』에서 단 한번 출현하고 있다.

앞의 장에서 '就'가 허사로서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듯이 '就'는 현대 중국어의 '就是', '即使'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설령 ~일지라도'라는 뜻으로 쓰인다. 전대의 관본에는 출현하지 않다가 후대의 판본 중에서도 가장 늦은 시기에 등장한 『重解』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 생겨난 용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고대 중국어에서도 '就'가 양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감안한다면<sup>10)</sup> 이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4. 언해류 중 '就'의 번역에 대한 분석

이상의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에는 '就'의 번역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번역은 중국어 원문에 입각하여 어떠한지를 판단하고 기본적으로 분질문<sup>11)</sup>을 한 단위로 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한 분질문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고 불완전 할 경우에는 앞, 뒤로 이어지는 분질문을 함께 보아 분석한다.

언해자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중국어 소양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최세진은 『鰲老』(1510)를 집필한 후 『老朴集覽』을 편찬하였는데 그는 『老乞大』와 『朴通事』(이하 『老朴』)의 번역작업을 하다가 이전에 내려오던 『老朴』의 해석에 잘못된 부분이 많고 元대에 사용되었던 것이 明대에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死語가 된 단어가 많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 내려오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고 死語가 된 단어들이 당시에는 어떤 단어로 바뀌어 쓰이고 있는지 등을

10) 고대 중국어에서 '就'가 양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고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三國志·魏書·荀傳》：“能破之，尚不可有也。”(破：擊破。有：占有)이 있다. (☞ 古代漢語字典(1998) 참고)

11) 하나의 텍스트(text)를 편의상 여러 개의 마디(分節)로 나누어 놓은 것을 말한다.

설명하기 위해 『老朴集覽』을 편찬하게 되었다. 또한 최세진은 그 당시의 상용어휘들도 『老朴集覽』에 수록하였는데 표제어에 대한 주해를 하는데 있어 본의보다는 당시 현실에서 사용되던 의미를 중심으로 매우 신중하게 해석을 하였다.<sup>12)</sup> 그러면 언해문 번역의 양상을 살펴보기 전에 이처럼 당시 역학자들이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공구서였던 『老朴集覽』에서는 ‘就’를 다음과 같이 풀이 해 놓았다.<sup>13)</sup>

**就** 卽也:就將來즉제가져오라, 就有了, 就去了;又遂也:就那裏睡了게셔자다, 就便곤, 又就行드되여셔ㅎ다 (單5-2-5)

例 ① ‘卽(즉시)’라는 의미이다.

예) 就將來 즉제가져오라(즉시 가져오라), 就有了(즉시 생겼다), 就去了(즉시 갔었다)

② ‘遂(드디어, 마침내)’라는 의미이다.

예) 就那裏睡了 게셔자다(드디어 거기에서 잠을 자다), 就便 곤(곤), 就行 드되여셔ㅎ다(드디어 하다)

그러나 『老朴集覽』에서 나타난 ‘就’의 쓰임은 ‘卽’와 ‘遂’의 부사적 용법만을 소개하고 있는데 중국어 언해자들이 이 『老朴集覽』을 기본 공구서로 삼고 번역을 하였다면 근대 중국어에서 나타나는 ‘就’가 다양한 허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번역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럼 앞 장에서 나는 ‘就’의 세 가지 용법인 전치사, 부사, 접속사로서의 번역

12) 광진영(2004:1)

13) 이 내용은 광진영(2004)이 『老朴集覽』을 번역한 후 현대의 사전 형식으로 편집하여 논문의 부록에 실어 놓은 것을 인용한 것이다.

의 양상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자.

### 1. 전치사의 번역

전치사로 쓰인 '就'는 5종 판본 중에서 『翻老』, 『老解』, 『舊解』에서 각 판본에서 5회씩 모두 15회 출현하였고 『新解』, 『重解』에서는 처소를 나타내는 의미로 각각 한차례씩 출현하고 있었다. '就'의 전치사 용법은 '처소'와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각각 나누어 살펴보자.

#### (1) 처소

처소표현은 행위나 사건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내며 현대국어의 '~에, ~에서'에 해당되게 번역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就地頭多少價錢買來 **밋싸해서** 언뎃 갑스로 사 I 13b01 『翻老』

就地頭多少價錢買來 **밋 싸히서** 언뎃 갑스로 사 I 12a06 『老解』

就地頭多少價錢買來 **밋싸히서** 언뎃 갑스로 사 I 12a06 『舊解』

今年就牢裏死了 올히 **옥에서** 주그니라 I 28b06 『翻老』

今年就牢裏死了 올히 옥에서 주그니라 I 26a01 『老解』

今年就牢裏死了 올히 옥에서 죽으니라 I 26a01 『舊解』

여기에서 '就'는 '~에서'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밋싸해서', '밋싸히서'는 현대국어 '생산지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sup>14)</sup> 세 판본에서 모두 '就'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용법을 잘 파악한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하겠다.

14) '해 · 서'는 '~에서'의 뜻이다. 유사한 예로는 '방門 안해서 날을 점을 오고(방안에서 날은 저 물어 오고)'가 있다. (李朝語辭典 참고)

就那裏撤下走了 즉제 게서 버리고 도망커늘 I 28a08 『翻老』  
 就那裏撤下走了 즉제 게서 버리고 드러나니 I 25b04 『老解』  
 就那裏撤下走了 즉제 게서 버리고 드러나니 I 25b04 『舊解』

就那裏拿起一塊大石頭 즉제 게서 흔 무직[적]큰 돌 가져다가 I 28a02  
 『翻老』  
 就那裏拿起一塊大石頭 즉제 게서 흔 덩이 큰 돌흔 가져다가 I 35a03  
 『新解』  
 就那裏拿起一塊大石頭 곳 게서 흔 덩이 큰 돌을 가져다가 I 25a07  
 『重解』

위의 예문에서는 ‘就’의 번역을 ‘즉시’와 ‘~에서’ 두 가지로 번역하고 있어서 약간의 혼동을 가져오고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부사의 용법으로 사용된 것인지 전치사의 용법으로 사용된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를 판단하려면 통사적인 각도에서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단 전치사가 되는 경우는 보통 문장의 구조상 전치사 뒤에 장소명사 그리고 동사의 순서를 따른다. 부사일 경우는 부사 뒤에 동사가 위치하여 그 동사를 수식하거나 만약 명사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는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가 하는 행위 즉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 된다.

위 예문에서는 ‘就’ 뒤에 장소를 나타내고 있는 명사가 왔을 뿐만 아니라 동사나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의 ‘就’는 부사보다는 전치사로 사용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또한 언해의 ‘게서’는 현대국어인 ‘거기에’를 나타내는 ‘게’에 위치를 나타내는 격조사 ‘~에서’가 붙어 이루어진 것으로<sup>15)</sup>, 풀이하면 ‘거기에서’의 뜻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언해의 ‘즉제(즉제), 곳’과 같은 번역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5) 위의 책.

(2) 방향

방향의 의미를 가지는 '就'는 전대의 세 판본에 단 한 차례 출현하는데 현대국어의 '~로', '~에'에 해당되게 번역되어야 한다. 예문을 보면,

明日就店裏尋你去 리실 店에 너 츠자 가서 II07a01 『翻老』

明日就店裏尋你去 너일 이피서 店에 너를 츠자 가서 II06a09

『老解』

明日就店裏尋你去 너일 이피서 店에 너를 츠자 가서 II06a08

『老解』

중국어 원문은 세 판본이 모두 동일한데 번역의 모습에는 차이가 있다. 『翻老』에서는 '就'를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파악하여 '就店裏'를 '店에'로 번역하였는데 『老解』와 『舊解』에서는 이를 '이피서 店에'로 표현하였다. 물론 '就'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내일'이라는 명확한 시간적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에'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번역함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가장 시기적으로 오래된 『翻老』가 이후에 등장한 『老解』, 『老解』의 번역보다 더 매끄러운 번역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 부사의 번역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부사의 용법으로 쓰인 '就'는 다섯 판본 모두 합하여 총 149번 출현하였다. 각 판본별 출현횟수를 살펴보면 전대의 세 판본인 『翻老』, 『老解』, 『舊解』에서는 각 판본에서 7회씩 모두 21회 출현하였고 후대의 두 판본 중 『新解』에서는 38번, 『重解』에서는 90번 출현하였다. '就'의 부사용법은 다시 '시간', '어기', '범위'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자.

(1) 시간부사

노걸대 제판본에 출현한 시간부사로서의 ‘就’는 모두 108회 출현하였는데 이중 전대의 세 판본인 『翻老』, 『老解』, 『舊解』에서는 각 판본에서 7회씩 모두 21회 출현하였으며 『新解』에서는 24회, 『重解』에서는 63회 출현하였다.

那客人就告了 그 나그내 즉제 고흐니 I 29b06 『翻老』

那客人就告了 그 客人이 즉제 고흐니 I 26b08 『老解』

那客人就告了 그 客人이 즉제 고흐니 I 26b08 『舊解』

那客人就倒了 그 客人이 즉시 것구러지거늘 I 36b05 『新解』

那客人就倒了 그 나그내 곳 것구러지거늘 I 26a10 『重解』

向師傅稟了就打了他 스승씨 읍고/즉시 저를 치되 I 08b07

『新解』

稟了師傅就打他 스승씨 읍고 곳 저를 치되 I 06b08 『重解』

我查看了門戶也就去睡了 내 門戶를 보슬피고 쏘 즉시 가 자리라  
I 32b02 『新解』

我查看了門戶也就去睡了 내 門戶를 보슬피고 쏘 즉시 가 자  
리라 I 23a09 『重解』

‘就’는 시간 중에서도 ‘곧, 금방, 즉시’ 등의 의미로 동작이나 어떠한 상태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위 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就’를 ‘즉제’, ‘즉시’, ‘곳’으로 번역하여 현대 국어의 ‘곧, 금방, 즉시’ 등으로 번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 어기부사

어기부사로서의 '就'는 모두 31회 출현하였는데 이는 모두 『新解』, 『重解』에서 출현한 횟수로 전대의 세 판본인 『翻老』, 『老解』, 『舊解』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어기부사의 '就'는 현대국어의 '곧, 마침, 바로, 딱, 정말로' 등에 해당되게 번역 되어야 하는데 예문을 보면,

就這般給茶飯吃    **이피서** 이리 차반 주어 먹이니    I 55a09  
 『新解』  
 大哥就這般見愛    큰형이 곧 이리 사랑하고    I 52a04    『新解』  
 隨你多少就是了    네대로 언머나 흠이 곧 올흐니라    I 49b01  
 『重解』

여기에서 '就'는 어기부사로서 사용되었는데 31회 모두 '이피서'나 '곧'으로 일괄 번역이 되었다.<sup>16)</sup> 현대 중국어에서 어기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正好, 實在, 可, 恰好'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당시 우리 국어에도 '진실로, 바로, 마침' 등의 어기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피서, 곧' 으로만 번역 했다는 것은 너무 기계적인 번역이라고 하겠다.

(3) 범위부사

범위부사로 쓰인 '就'의 각 판본별 출현양상을 살펴보면 전대의 세 판본 『翻老』, 『老解』, 『舊解』에서는 역시 나타나지 않다가 후대에 와서 『新解』에서 2회, 『重解』에서 8회 출현하였다. 범위부사 '就'의 번역은 현대국어의 '단지, 오직,

16) 지면 관계상 31회 출현한 예문을 모두 들 수 없어 횟수만을 제시하겠다. 인해문에서 어기부사를 '의피서'로 번역한 경우는 31회 중 4회이고 나머지 27회는 모두 '곧'으로 번역하였다.

바로' 등으로 번역 되는데 예문을 보면,

咱們就到後園裏去 우리 곳 뒷동산에 가 I 46b09 『新解』

이 예문은 분절문 만을 볼 경우 범위의 의미가 나타나는지 모호하다. 따라서 앞, 뒤로 연결되어진 문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문을 다시 들어보면,

這樣黑地裏	이리 어두운 짜히	I 46b08	『新解』
咱們就到後園裏去	우리 곳 뒷동산에 가	I 46b09	『新解』
茅房裏難去	뒷간에 가기 어려오니	I 46b08	『新解』
出恭不好麼	뒤보기 조치 아니하랴	I 46b10	『新解』
我拉着馬	내 말을 잇글 썩시니	I 47a01	『新解』
你自出恭去	네 뒤보라 가라	I 47a02	『新解』

즉 '就'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뒷동산'이라는 공간을 한정해주고 있는데 위의 언해문을 현대 국어로 풀이해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어두워 뒷간에 가기 어려우니 바로 뒷동산에 가서 불일을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을 끌테니 당신은 불일을 보러 가세요.'

그리고 또 다른 예문을 들어 보자.

教客人們就在這棚子底下坐着吃飯 나그니들로 하여/이피  
 서 이 가게 아리 안자 밥 먹게 하라 I 51a06 『新解』  
 就在這車房裏住一宿如何 곳 이 술위사 방의셔/하룻밤 머  
 물미 엇더하뇨 I 47b10 『重解』

위 두 예문 역시 '就'가 공간의 범위를 한정해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다

른 곳이 아닌 바로 이 '가개'와 바로 이 '술위스 방'을 한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 범위부사 '就'는 각각 '이피셔'와 '곳'으로 일괄 번역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17)</sup> 이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老朴集覽』에서의 '就'의 번역을 단순히 '卽', '遂'의 뜻으로만 풀이하고 있어서 언해문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언해자들이 '就'가 가지는 다양한 부사의 뜻을 너무 기계적으로 '이피셔'나 '곳(곧)'으로만 번역하게 된 원인일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 3. 접속사의 번역

就가 접속사(◎連詞)로 쓰인 경우는 『重解』에서 단 한번 출현하고 있다. 이는 현대국어의 '실령(설사)~일지라도'라는 양보를 나타내는 의미에 해당되게 번역되어야 하는데 예문을 보면,

就窄些怕甚麼 곳 저기 좁은들 브서시 저프리오 II58b02 『重解』

예문에서는 '就窄些'를 '곳 저기 좁은들'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비록 '就'를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뜻으로 '~한들' 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듯 보이나 부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곳'을 덧붙였다. 이 문장에서 '就'는 접속사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혹은 범위의 부사로 번역함은 맞지 않으므로 '곳'이라는 번역은 하지 않아야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것이다.

## 5. 나오는 말

17) 언해문에서 범위부사를 '의피셔'로 번역한 경우는 10회 중 1회이고 나머지 9회는 모두 '곳'으로 번역하였다.

이상의 논의와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就’는 고대중국어에서 근대 중국어로 넘어가면서 부사, 전치사, 접속사의 용법으로 각각 분화되어 사용되었는데 부사에서는 시간을 나타내거나 어기를 표현하거나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전치사로서는 장소를 나타내거나 방향을 표시하는 의미를 나타내었고 접속사로서는 ‘설령(설사)~일지라도’라는 양보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의 품사로 나누어 노걸대 언해류 5종 판본에 출현하는 ‘就’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면 첫째 전치사 ‘就’의 번역 중 방향의 의미를 가지는 ‘就’를 『翻老』에서 옳게 번역한 것을 오히려 후대의 두 판본 『新解』, 『重解』에서는 부사로서의 쓰임과 혼동하여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한차례 있었다.

둘째 부사 ‘就’는 시간, 어기, 범위의 세 가지 하위항목으로 나누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중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서의 사용이 전체의 72%로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언해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로 비교적 잘 번역이 되어 있었다. 한편 어기와 범위를 나타내는 부사로서의 사용은 각각 21%, 7%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도 그 번역 양상을 살펴보면 긍정이나 강조 및 범위의 한정을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번역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시간 표현의 ‘곳(곳), 이피셔’로 일관되게 번역하고 있었다. 이는 ‘就’가 부사로서 시간, 어기, 범위의 의미로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기계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번역한 결과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就’가 접속사로 사용된 경우인데 이는 단 한차례 등장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역시 부자연스러운 번역이 나타났다. 즉, 이를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의 번역과 함께 ‘곳’이라는 부사로도 번역하고 있는데 ‘就’가 가지는 접속사의 기능에 따라 확실히 번역하지 못하고 부사적 기능과의 혼동으로 인하여 언해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주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진다.

〈參考文獻〉

- 『翻譯老乞大』, 한국전통중국어교육문헌연구회 전자텍스트  
『老乞大諺解』, 한국전통중국어교육문헌연구회 전자텍스트  
『舊刊老乞大諺解』, 한국전통중국어교육문헌연구회 전자텍스트  
『老乞大新釋諺解』, 한국전통중국어교육문헌연구회 전자텍스트  
『重刊老乞大諺解』, 한국전통중국어교육문헌연구회 전자텍스트  
『古代漢語詞典』(2001), 商務引書館  
『古代漢語字典』(1998), 北京大學出版社  
『近代漢語詞典』(1997), 團結出版社  
『近代漢語虛詞詞典』(2002), 河北教育出版社  
『李朝語辭典』(2000), 延世大學校 出版部  
『표준 국어 대사전』(1999), 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곽진영(2004), 「『老朴集覽』의 「單字解」, 「累字解」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완진(1975), 「老乞大의 諺解에 대한 比較 研究」, 한국연구원  
량홍매(2003), 「老乞大의 제 간본을 통해 본 중국어의 문법변화 양상」,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석주연(2001), 「老乞大와 朴通事의 諺解에 대한 國語學的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성광수(1990), 「언해류상의 특이표현과 오역(1)」, 한국어학신연구, 한신문화사  
여찬영(1987), 「경서류 언해의 번역학적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제3집  
여찬영(1988), 「조선조 구결문과 언해문의 성격연구」, 『국문학연구』 제11집  
유성은(2000), 「『노걸대』·『박통사』에 보이는 “的”와 “着”의 용법고찰」 『중국언어연구』 제10집  
이창호(2004), 「시간부사 ‘就’ 소고」, 『중어중문학』 제35집, 한국중어중문학회  
최재영(2005), 「『노걸대』 4종 판본 부사 연구」, 『중국학연구』 제33집, 중국학연구회

### 《中文提要》

老乞大諺解諸版本是紀錄漢語和韓國語的材料，作為研究語言史的寶藏受到高度的重視。諺解本是漢語和韓國語對譯形式的漢語教材，不過一直到现在很少從漢韓翻譯的角度討論過。

本文對“就”在老乞大諺解五種版本中的翻譯情況進行窮盡式的考察和分析。在老乞大諺解五種版本中“就”的用法可以分為介詞、副詞、連詞的三種，其中副詞的使用頻率最多。在句中介詞的“就”在全部的版本中分為表示方向、處所的介詞，翻譯上的錯誤出現一次。副詞的“就”在全部的版本中又分為時間、語氣、範圍副詞，可是在翻譯上大部分被誤譯為時間副詞。在全部的版本中連詞的“就”出現一次，可是翻譯也不是自然的。這點跟當時譯官的背景語言中已有的古代漢語的知識有密切的關係。錯誤的類型多屬負遷移和過度泛化。

關鍵詞：老乞大、諺解、翻譯、誤譯

